

오늘은 2020년 5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 5월 3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지입니다>

1. 주일 오전예배는 특별한 공지가 없는한 계속 드립니다.
2. 다만, 열이나 기침등 증상이 있으신 성도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3.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염려가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됩니다.
5.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체크, 증상유무확인, 손세정제로 손씻기, 개인마스크 착용 확인등을 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고, 예배당에서는 가족들은 함께 앉으시고, 가족 아닌 분들과는 의자 하나를 비워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6.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당분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려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타교회 성도분들 예배 가능한지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꼭 예배드리러 오실 분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pastorcho@hanmail.net)

1. 오늘은 결석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합시다.
김광수, 정찬미, 김수형, 민주, 박영복, 정용범, 정하엽, 박용민, 최민지, 전명숙, 곽영준, 남아주, 김경환, 김은수

오늘 장년 84명, 중고등부 5명, 초등부 13명, 유년부 4명, 유치부 10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 5월은 <교회, 예배,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 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질적, 양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오늘부터 점심식사 및 오후모임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개합니다.

다만, 5월 한 달은 현재처럼 간단한 식사 및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가족별로, 가급적 다른 성도들과 대화없이

/ 대화 및 교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합니다.

5. 이번 화요일(5일)은 공휴일이어서 아침예배를 쉽니다.

6.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다음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7. 지난 주부터 아침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8. <2020년 4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 오늘 오전예배 시간에, 장유주 아가(장주현-반다혜 가정) 축복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유주 아가 가정에서 백일 감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0. 3월에 이어 4월에도 재정적으로 힘든 작은 교회 두곳에 각각 50만원씩 후원을 했습니다

11. <5월> 필독서를 판매합니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도서출판 다함)

책값은 1만원입니다.

12.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방역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